



# 걸어서 할머니 집

뜨거운 여름날, 중학교 2학년 유이와 초등학교 6학년 이모가 길을 나섰다. 뜨거운 태양에 땀이 턱 턱 막혔고 세찬 바람에 발이 꽂 꽂 묶였다. 또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무서운 야생동물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이와 이모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고 꼭 걸어서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 과연 두 자매는 무사히 할머니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열세 살의 맹크 숫

목표나 가치관이 확립되진 않았지만, 자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열세 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나이의 고민을 이야기한다. 아역 배우가  
되어 멋진 스타를 꿈꾸던 하나는 갑작스럽게 농  
구부에 들어가 농구공을 던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  
는 경험을 한다. 게다가 농구를 좋아하는 지수와  
사진 찍는 것에 빠진 계인이 만나면서 자신  
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  
시 생각해 보게 된다.





# 방학 탐구 생활

방학계획표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 집과 교실은 안전하지만 때론 몸을 올해고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억압하는 뒷이 되고 마는 현실. 하지만! 낭만과 긍정의 소년 백석은,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을 어마어마하게 굳사하고 멋지게 보내기로 다짐하는데....





# 별빛유랑단의 반짝반짝 별자리 캠핑

천문학의 기초와 계절별 별자리 관측 방법을 알려주는 어린이 교양서. 별빛을 사랑하는 초등 교사들이 풍부한 관측 경험을 바탕으로 짐필해, 어린이들의 눈 높이에 맞게 별과 우주에 관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전하는 동시에 별자리 관측을 통해 캠핑을 색다르게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사계절 생태 캠핑

캠핑을 가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 먹고 마시는 것 말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캠핑장 주변은 자연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이다.

사계절 생태 캠핑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활동을 보여준다. 이 책은 '생태 캠핑 안내서'로 활용하여 열두 달, 열두 가지 다양한 생태 활동 배울 수 있다.





# 여름이 반짝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으며, 누군가에게  
는 잠깐 같은 반 친구였던 유하의 죽음을 계기로,  
아이들이 불가항력의 경계를 넘어 다시 만나고  
제대로 작별하고 성장의 한 마디를 넘어가는 이  
야기이다. 아이들이 각자의 아픔으로부터 단단해  
지고 편견과 오로우로부터 서로를 찾아내고 마침  
내 반짝이는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들은, 단정한  
문장과 맑은 그림으로 재현되었다.





# LH가 잡았어!

느피드를 요구하는 승부의 세계에 놓인 남자아이  
의 마음 상태를 조명한 <내가 잡았어!>는 위기  
의 순간에 느끼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생각을 섬세하고 치밀한 솔로 모션(Slow Motion)  
으로 담은 작품이다.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외  
적인 사건이 아닌, 마음과 생각을 보여 주는 스  
페터클한 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첨벙!

엠마는 다이빙대에 오르기만 하면 무언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이빙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아이다. 매일매일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밤마다 다른 다이버들의 모습을 보며 공부도 한다. 하지만 늘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고 중요한 대회를 앞둔 엠마의 몸과 마음은 무거워져 만간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는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동전 '페니'를 발견해 된다. 페니는 엠마를 보며 자신도 다이버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 축구왕 이채연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여자 축구부의  
좌충우돌 훈련기와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관  
계 변화를 경쾌하게 그린 동화다. 초등학교 교  
사인 작가가 교내 여자 축구부 감독을 맡은 경험  
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은 운동이라면 질색인 주인  
공 채연이가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  
겨 여자 축구부에 가입한 뒤 축구의 즐거움에 빠  
져드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다.





# 터널

티격태격하던 오누이가 서로를 안아 주는 특별한 관계로 성장하는 이야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남매가 지나가는 이상하고 기이한 터널, 나와는 정반대의 타인과, 내 안의 모순과 화해하는 시간. 대조적인 두 남매의 갈등과 화해를 머리 카락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사실적인 그림과 환상적인 스토리로 담아낸다. 극적인 구성, 불가 사의한 분위기, 자연스럽고 화려한 그림이 매혹적인 판타지 그림책.

